



# 사랑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!

형제 여러분, 기뻐하십시오.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. 서로 격려하십시오.  
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.  
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.  
( 2 코린 13,11 )



**포콜라레**  
천주교마리아사업회



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자주 얘기하세요.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인 니코데모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, 그분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세요.



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,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했어요.



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서로 용기를 주고, 한마음으로 평화롭게 돕고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.



폴은 영국에서 살아요. 같은 반 친구들 두 명이 폴을 자주 놀렸어요. 폴은 친구인 크리스토프에게 물었어요. “어떻게 해야 하지?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계속 저러네.”



크리스토프는 이렇게 제안했어요. “예수님께 그 애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. 며칠 후, 폴은 자신의 생일에 모두와 파티를 하려고, 학교에 과자 한 상자를 들고 갔어요.”



담임 선생님께서는 두 명의 친구들과 같이 과자를 옆 반에도 나눠주자고 하셨어요. 폴은 친한 친구들과 하고 싶었지만, 놀리는 두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. 두 친구는 놀라워하며 함께 나눠주러 갔고, 그날부터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.